



■ 연구원 주요일정

- 05월 15일(月) : 주간회의
- 05월 17일(水) : 연구원 야간강좌

■ 연구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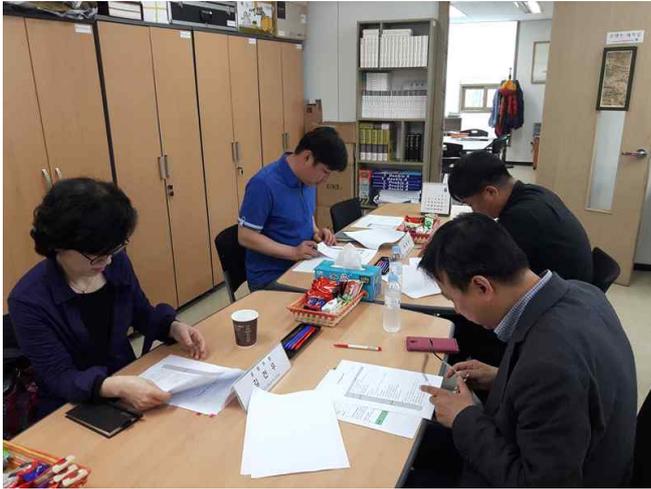
○ 전남, 광주지역 모임 (5월 9일)

- 날짜 : 2017.05.09(火) 오후 6시
- 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내용 : 2월 창립모임으로 광주·전남모임이 공식화 된 이후 무등회라는 이름으로 2차 모임이 열렸습니다. 연구원 사무국이 초청되어 무등회 유선종 회장과 7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19대 대선 개표방송을 함께 관람하며 새로운 시대 이후 연구원이 가야할 길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변장섭 회원 부인이 6월 출산 예정인 관계로 다음 모임은 출산 후 다시 함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 모임(백악회), 전북권 모임(모악회)도 무등회의 모범을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 4차 운영위원회 실시 (5월 11일)

- 날짜 : 2017.05.11(木) 오후 5시
- 장소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의실
- 안건 : 1. 왕기석 명창 공연관람, 숙박 및 뒤편이 행사 진행의 건
2. 제2회 해외역사탐방 관련의 건
- 내용 : 왕기석 명창 공연에는 참석가능하신 운영위원께서 함께 해 주시기로 하였고, 제2회 해외역사탐방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 여권 및 비용 50%를 받아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5차 운영위원회는 6월 2일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왕기석 명창 공연관람 및 뒤편이 (5월 13일)

- 관람일 : 2017.05.13.(土) / 장소 :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15 황토현 전적지 일대
-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제작총감독으로 진행하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극본을 쓴 창무극 <天命> 공연이 5월 12일과 13일 2회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원 회워 50여명이 13일 저녁 황토현 전적지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30여 분의 회원은 인근 숙박장소로 옮겨 긴 시간 뒤편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과 용인, 광주 등지에서 먼길 마다 앓고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한국고전학연구소,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안내

- 기 간 :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30분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2호
- 진 행 :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 교 재 : 『호남의사열전』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20분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원 신규 회원 가입

: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용인에 살고 계시는 “이동균” 님과 “진성호” 님 입니다. 지난 13일 “天命” 단체 관람과 숙박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통해 더욱 자주 모시겠습니다. 연구원 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함께하는 베트남 평화기행

■ **여행명:**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역사와 치유를 위한 베트남 평화기행

■ **성 격:** 역사·문화·평화 기행

■ **지 역:**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베트남 중부 꽝응아이성, 꽝남성, 호이안

■ **여행기간:** 2017년 08월 20일(일) 오전 10시 ~ 2017년 08월 26일(토) 오전 7시 / 06박 07일

■ **여행경비**

1) 항공료 (TAX, 유류할증료 포함)

해외: 인천↔호찌민 / 베트남 국내: 호찌민↔다낭

* 기준 항공가 44만원. 실제 항공 요금이 44만원 이상일 경우 여행 경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44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액을 반납해 드립니다.

2) 현지 교통비 (전용차량, 도서관 이동편)

전용차량: 전세버스 35/45인승

3) 전 일정 숙박

3·4성급 호텔 (2인 1실) 5박

4) 전 일정 식대: 1끼 식대 평균 가격 8\$ 이상

5) 투어비

호찌민시 시내 산책 / 반레 시인과의 만남 / 전쟁박물관 탐방 / 구찌땅굴 탐방/

고엽제 피해자들과의 교류 / 남부여성박물관 탐방 / 빈호아사 한국군 증오비 참배/

빈호아 초등학교 방문 및 장학금 전달식 / 빈호아 학살 생존자 도안응이아와의 만남/

탄타오 시인과의 만남 / 밀라이 박물관 탐방 / 하미 위령비 참배 / 하미 학살 피해자

고(故) 팜티호아 할머니 조문 / 풍니 위령비 참배 / 풍니 학살 생존자 탄 아주머니와의

만남 / 후에 궁중아악 가족연주단 <사절아악>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6) 현지 가이드 및 운전기사 숙식비, TIP

7) <한베평화재단> 오퍼레이팅비

가이드 1일 200\$ 외 통역비, 프로그램 기획 및 오퍼레이팅비

8) <한베평화재단> 길벗 여행경비(항공료, 숙식비, 교통비, 투어비)

9) 인민위원회 허가 수속비

10) 지원비: 생존자 지원비, 여행지역 지원비

11) 선물비

12) 해외여행자보험

* 신청기한은 5월 19일까지이며, 총비용은 참석인원수에 따라 유동적이거나 160~18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영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九月九日 憶山東兄弟

구월구일에 산동의 형제들을 그리며

獨在異鄉爲異客(독재이향위이객) 나 홀로 타향에서 낯선 나그네로

每逢佳節倍思親(매봉가절배사친) 아름다운 명절을 만날 때마다 부모 생각이 더욱 난다.

遙知兄弟登高處(요지형제登高處) 형제들이 높은 산에 오른 줄 멀리서도 알겠으니

徧插茱萸少一人(편삽수유소일인) 모두가 산수유 꽃고 이 한 사람 모자랐으리.

■ 작자소개

- 왕유(王維; 699~759). 당나라 때 저명한 시인이며, 화가로 시, 음악,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남종화는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생존 시에 설경산수화로 유명했으며, 가장 유명한 작품은 <망천도>라는 화권이다. 이 그림은 전해지지 않으나, 후에 제작된 많은 모사품으로 대강의 구도는 보존되었다. 또한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701~762), 두보(712~770)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힌다.

■ 감 상

- 9월 9일은 중양절(重陽節)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명절이다. 중구절(重九節)이라고도 부른다. 중양이란 양수(陽數) 가운데 가장 큰 수인 9가 겹쳤다는 의미이며, 중구란 말은 9가 겹쳤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중양절을 맞게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로 빚은 술을 마시며, 악귀를 쫓아준다는 산수유 가지를 머리에 꽂고 놀았다.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 함께 즐기며, 술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17살의 왕유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향을 잠시 떠났던 모양이다. 이때 왕유는 중양절을 맞아 고향을 그리면서, 동생들과 함께 놀던 옛일을 돌아보고 이 시를 지었다.

- 리카비토스 언덕의 '머피 법칙' -



<파르테논 신전에서 바라 본 리카비토스 언덕>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할 수 있는 리카비토스는 해발 277m 인데, 주위에 높은 곳이 없어서인지 아주 높아 보인다. 그리고 시내에서부터 걸어가 언덕을 오를라치면 제법 땀이 난다. 정상 가까이는 경사면이 가파른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멀리서 언뜻 보자니 언덕 위로 올라가는 케이블카가 안보여서 '걸어가야만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힘들여 정상에 올라갔는데, 도착하고 보니 뒤편에서 케이블카가 어슬렁거리며 올라오고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25층 계단을 힘들게 올라갔는데, 고장 난 엘리베이터가 수리되어 올라와 있었다는 머피의 법칙 얘기가 떠올랐다.

바위로 된 리카비토스는 명칭이 늑대(리코이)에서 파생되었고 아테나 여신이 아크로폴리스의 성을 만들기 위에 바위를 옮겨오다가 이곳에 떨어뜨렸다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정상에는 과거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터에 지금은 하얀색의 아담한 예배당(아기오스 게오르기오스)이 있다. 또한 신기하게도 올리브나무가 한그루가 바위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올라오면서 흘린 땀은 정상의 시원한 바람이 닦아 준다. 이곳에서 보는 저녁놀은 아름답다. 그리고 이곳에서면 사방이 다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내려다보이는 아테네 시내와 파르테논 신전과 함께 색다른 느낌을 준다.

■ 나의 문화유산 연재기

내가 어릴 적 나고 자란 춘천에는 이렇다 할 유적도 유물도 없었다. 청평사 정도의 유적과 시내 한복판의 알 수 없는 탑 하나 정도만이 우리 지방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었다. 상경하여 사학과에 입학한 후에야 춘천을 비롯한 영서 지역에 여러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미술사 수업을 들으며 석등의 양식에 대해 배울 때, 석등의 형태가 8각형에서 4각형으로 변화하는데 그 중간에 잠시 6각형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하면서 슬라이드 필름으로 본 것이 바로 화천에 있는 '계성사지 석등'이었다.



<6각 형태의 계성사지 석등>
(보물 제496호)

추석 때 고향집에 내려와 계성사지 석등을 보러가자고 아버지를 졸랐다. 계성사지는 화천군 하남면 계성리 계산골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민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두 이주되고 군작전 지역에 편입되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이다. 다행히 휴일에는 군작전이 없기 때문에, 출입해도 좋다는 군관계자의 허락을 받고 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사보호구역 출입구에서부터 석등을 만나러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군작전 지역 안에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걸어 들어가 헤매기를 2시간여...결국 지쳐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해 추석은 유독 빠른 9월 초라 아직 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고, 개울에 물도 넘쳤으며, 풀도 무성했다.

개울에 물이 마르고 들판에 우거진 풀이 사그라지면 좀 더 쉽게 석등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2달 반 뒤인 11월 말에 다시 한번 화천으로 향했다. 출발 전 군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강의 위치를 확인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출발하였다. 1시간 여를 걸었을까? 저 멀리 석등의 모습이 들어왔다. 근처의 별통을 보니, 지난 추석 때 이 코앞까지 왔었는데 큰 키의 풀이 우거져 보이지가 않았었던 것 같다.



<계성사지 석등 전경>

계성사지 석등은 앞서 언급한대로 등불을 넣는 불집인 화사석(火舎石)이 6각 형태로 되어 있다. 보통의 석등 화사석이 8각이나 4각인데 반해 굉장히 특이하다. 화사석이 6각으로 되어 있는 석등은 황해도 자혜사, 금강산 정양사 등에도 존재하는데 특히나 금강산 정양사 석등은 계성사지 석등과 마치 쌍둥이처럼 닮았다.



<정양사 석등, ©국립문화재연구소>

금강산 정양사는 고려 태조대 창건된 이래 여러 차례 고쳐지었는데 현종의 즉근으로 활약한 최사위가 손을 댄 적이 있었다. 최사위가 손을 댄 사찰은 이 외에도 현화사, 봉은사 등 17군데나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계성사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양사 석등과 계성사 석등의 모습이 비슷한 게 이해가 된다.

보통 미술사를 전공한 학자들은 이러한 6각 석등에 대해 신라 말~고려 시기 과도 양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게 몇 되지 않고 남한에서는 더더욱 귀하기에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갑다. 이 석등을 마지막 만나고 돌아온 게 벌써 10년 전이다. 불교 미술을 전공하는 후배가 레포트 쓸 주제가 없다고 해 추천해주고 함께 다녀온 게 마지막이다. 올해 화천군에서 다시 계성사지를 발굴한다고 하니, 이후에 다시 한번 다녀와야겠다.